<프랑스 문학과 영화>

현대성과 내 청춘

보들레르와 랭보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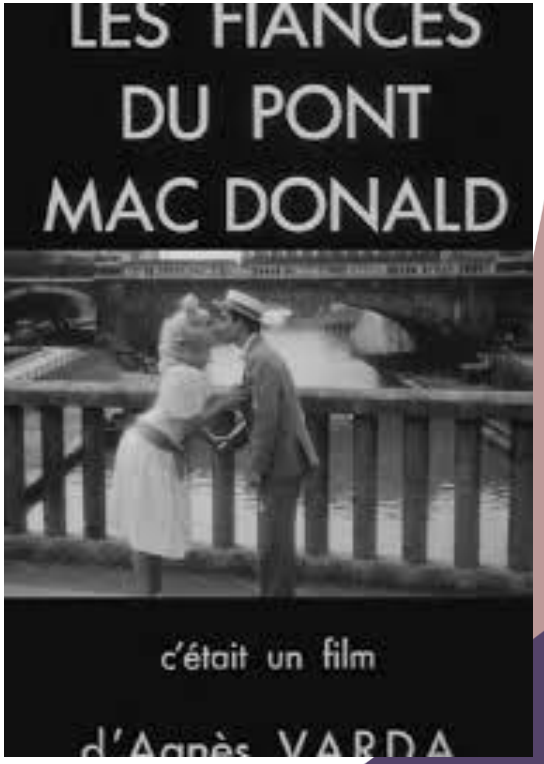
<나쁜 피>의 명대사

-순간적으로 찾아와 영원히 머무는 사랑을 믿어요?

-당신을 그냥 스쳐간다면, 난 모든 걸 스쳐가는 거야.

일 순간 찾아와 영원히 지속 되는 사랑
<5시부터7시까지의 클레오>

벨기에, 예술사 전공, 감독,
사진가, 조형예술가
비쥬얼아티스트, 다큐 작가, 작사가, , 2019사망



덴마크, 안나 카리나, 2019사망

나를 위안 하는 사라져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아름다움

인상파의 순간성
구름 같은 낯선 만남
20분의 사랑의 운명

인상파 사랑의 소재:
사랑의 종착역 멘느 몽파르나스 역

자가 치유self-therapy self-construction:

- “from 5 to 7”: 파리에서 남녀가 만나게 되는 마법의 시간
- 사회적 여성: 페미니슴 이상의 페미니슴 여성 감독이 던지고 허무는 여성에 관한 사회적 시선 폐기

- 개인적 여성: 누구나 지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 죽음, 불, 절망, 무관심. 낯선 사람과의 진실된 대화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잠든 나를 깨워 내면의 평화 구축.

- 파리의 카페, 거울, 군중, 일상의 소음, 음악 아닌 사운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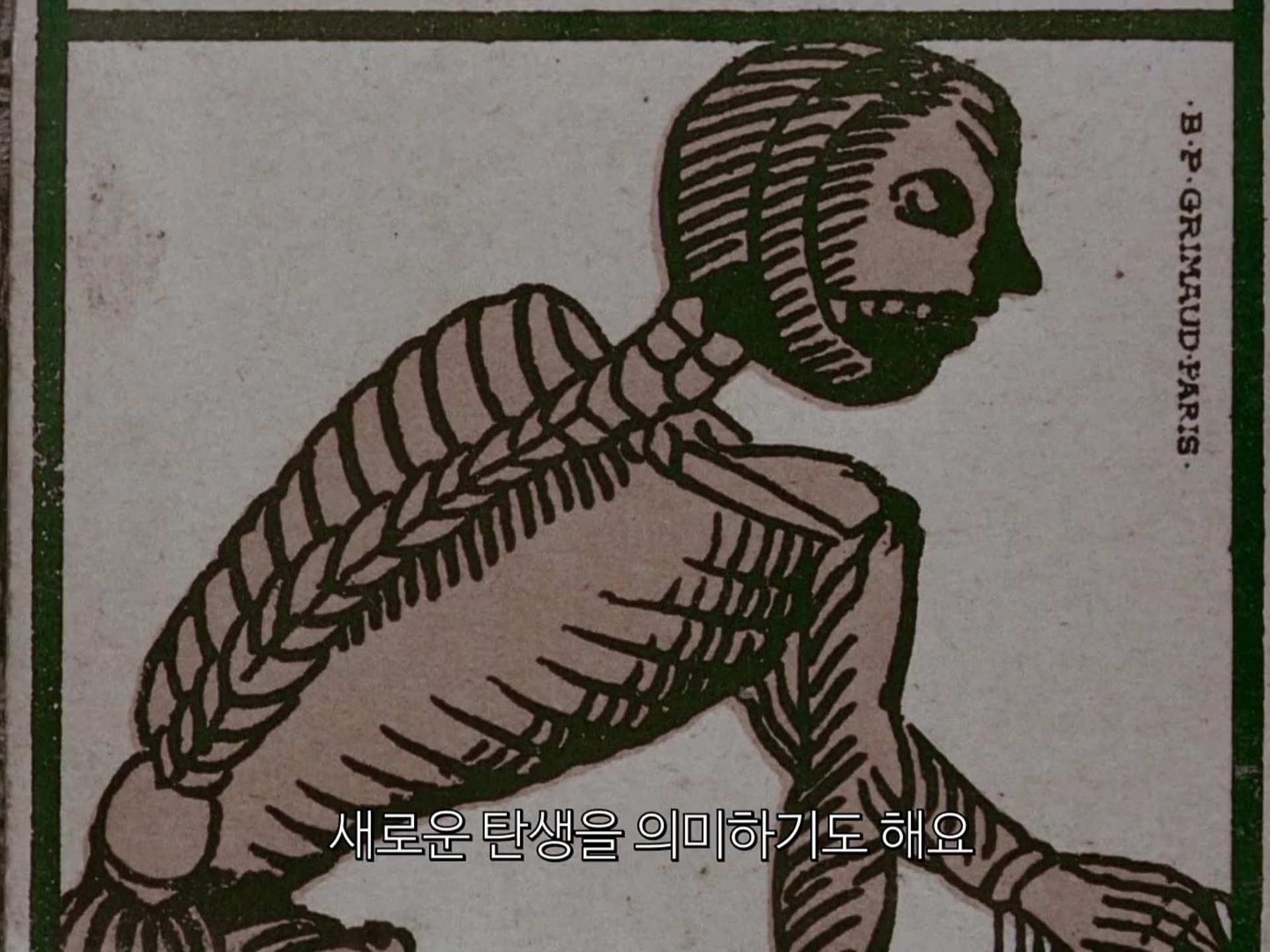
<막도날드 교의 연인>-> 퐁뇌프의 연인
Les Fiancés du pont Macdonald

파리의 영화 < Café

인공 낙원 = 예술

인공 정원

걱정말아요, 이 카드가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제1장
2 17:05-17:08
apitre I
ÉO de 17 h. 05 à 17 h. 08

우린 매일 싸우기만 하잖아
나도 푹 쉬고 싶어

동료 둘이 달려와서
날 구해줬죠

醜 vs. 美

"그들은 나 이상의 것을 보고 있지. 형태, 관념. 마치 내가 그곳에 없기나 하듯, 내가 잠든 듯이. 그리고 대가도 지불하지."

They're looking at more than just me. A shape, an idea. It's as if I wasn't there. Like I was asleep. And I'm paid for it.“

그들은 나 이상의 것을 보고 있지. 형태, 관념. 마치 내가 그곳에 없기나 하듯, 내가 잠든 듯이.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제10장
라울 18:00-18:04
Chapitre X
선 조심해
RAOUL de 18 h. à 18 h.

제13장
클레오와 앙투안느 18:15-18:30
Chapitre XIII
CLÉO et ANTOINE de 18 h. 15 à 18

앙투안 부르세예, 작크 드미

오늘 해가 쌍둥이자리를 떠나
게자리로 가죠

오늘 해가 쌍둥이자리를 떠나
게자리로 가죠

말이 너무 많군요!

의사를 뭐하러 찾는담

레바논과 오동나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당신 주소를 줘요
당신을 잊지 않게요

저녁은 밖에서
먹는 게 어때요?

Fin (END)
종영 표기가 없다?
침묵 속 발자국 소리,
6시 30분을 알리는 종소리로 종영

보들레르와 랭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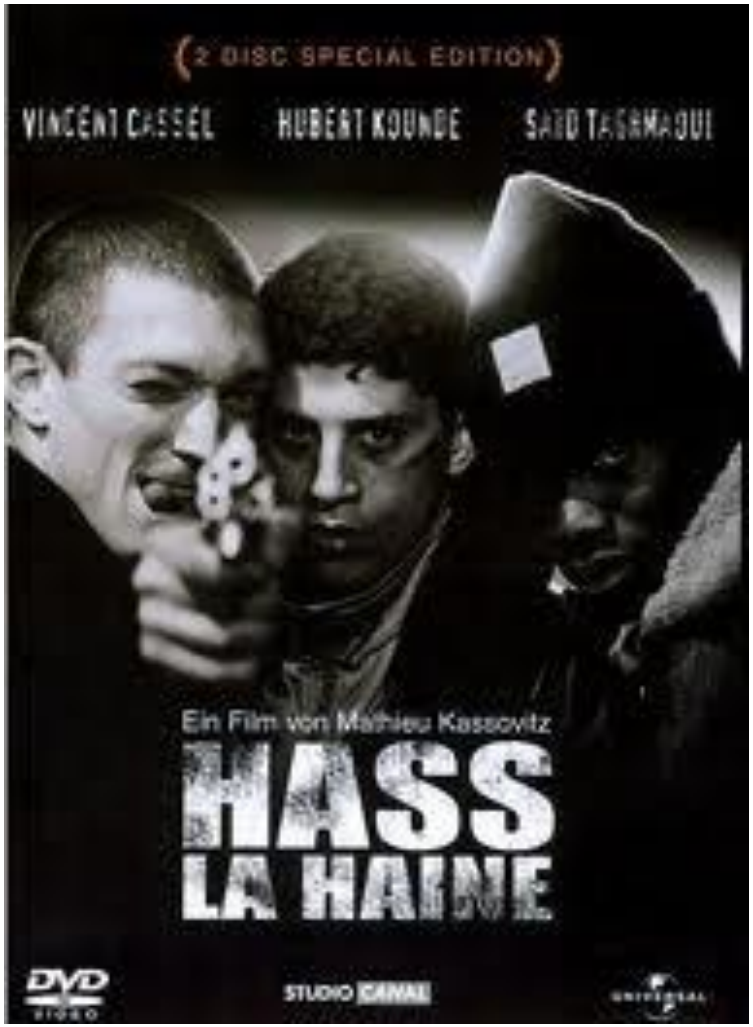
"'지옥'이건 천국이건 상관없으리, 심연 밑바닥에 뛰어들고 싶구나, 미지의 밑바닥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여행」, —보들레에르

"시인은 미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폴 드므니에게 보낸 편지1871, —랭보

마티외 카소비치(아멜리에의 니노)
<증오la Haine>



보들레르의 Non-Moi

랭보, '나는 남이다'

<증오> 감독의 제작 의도

파리 18구 경찰의 감호를 받던 소년 마코메 음보월레Makomé M’Bowolé가 경찰에 의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27세의 청년 감독 마티외 카소비츠Mathieu Kassovitz는 무대를 1995년 가난한 파리 교외 뮈게Muguet 단지로 옮겨 소요 사태에서 희생된 친구의 죽음에 분노하며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24시간을 영화화한 〈증오La Haine〉(흑백, 97m)를 발표한다. 천대받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의 시선이 불러일으킬 불행한 공동체적 파멸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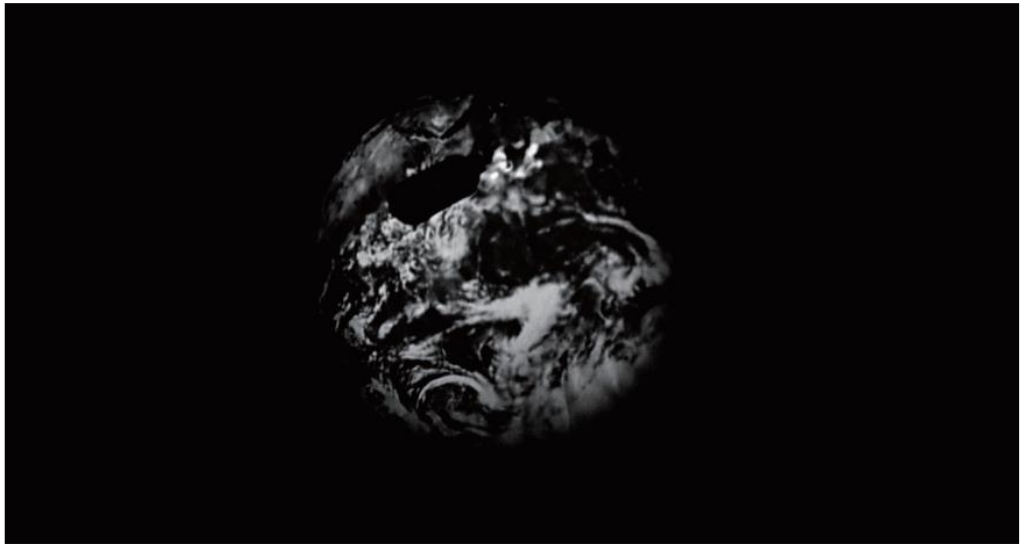
나와 무관한 죽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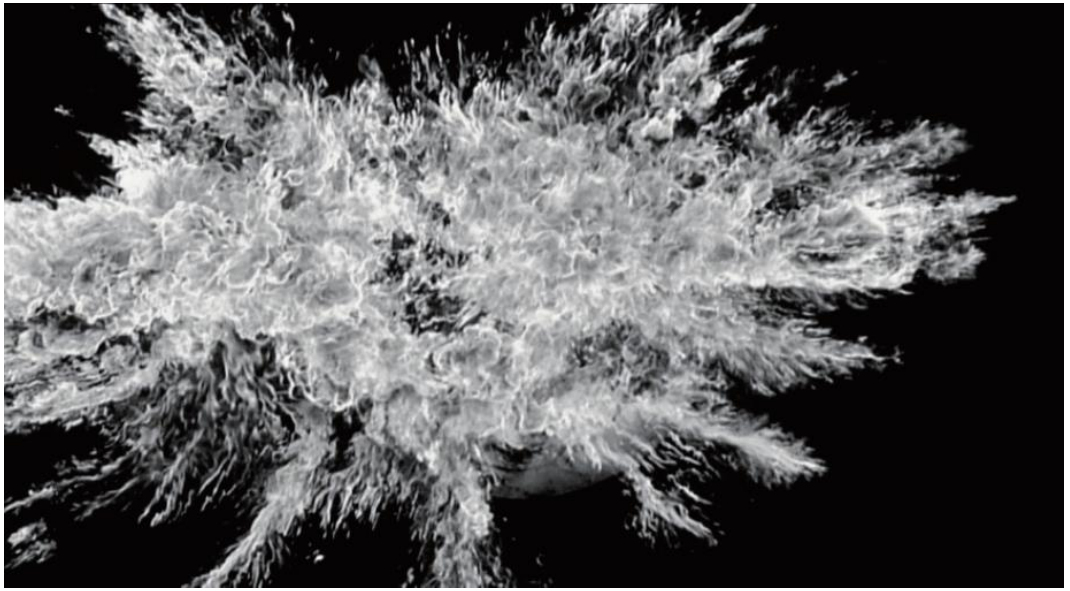
"백인인 나로서는 직업도 있고, 파리에서 살고 있기에 '증오'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교외 빈민가 출신 당신 친구가 경찰 고문으로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보들레르(예술가)의 보편적 세계관
<증오>의 화두

50층 건물에서 추락하고 있는 어떤 사내가 있었지
이 친구는 점점 추락해갈수록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반복해서 지껄여댔지
"아직까진 아무 문제없어"
"아직까진 아무 문제없어"
"아직까진 아무 문제없어"
중요한 것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처박힐 거라는 사실이지

화염병 하나가 세상을 폭파한다





밥 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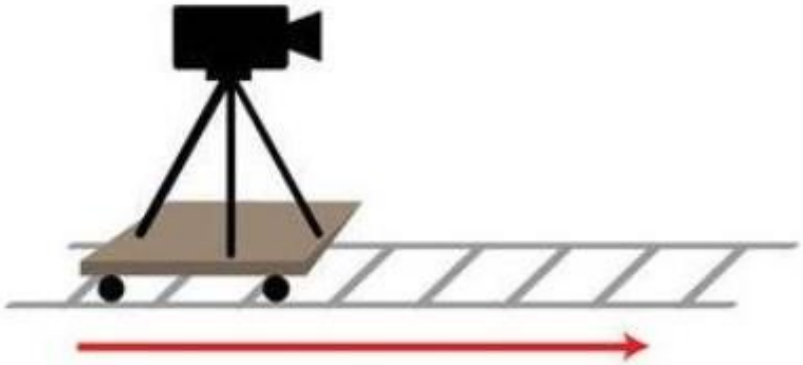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Dolly zoom
(**Zoom-in Track-out**)

동영상

1. 고정 숏 (Fix 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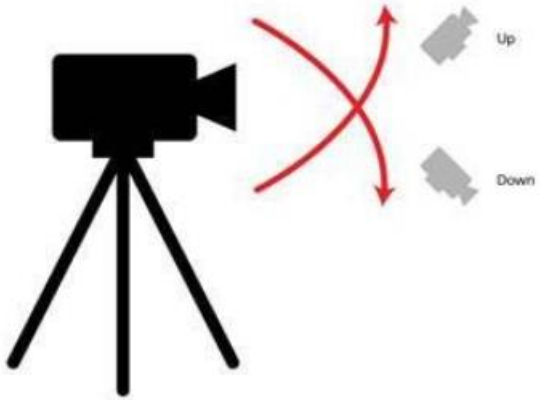
2. 달리 숏 (dolly shot) & 트랙킹 (tracking)



아크 (Arc)와 차이

(곡선 트래킹, 피사체를 둘러 감쌈, 키스신)

3. 틸트 (Tilt)



붐(Boom) 카메라 자체가 크레인, 지미짚 등과 같은 장비에 의지한 채로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

4. 팬 (Pan)

세계적 영화 <증오>

이 시대 경찰 폭력은 마땅히 비난받고 손가락질당해야 하겠지만, 이 폭력들이라는 것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확신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국제적 문젯거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긍지를 느끼며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예술가의 괴로움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자본으로 치유할수 없는 그 무엇이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지저분함도 아니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저마다 조금씩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증오심으로 살해당한 '나' 속의 예술가이다.

프랑스 스토리텔링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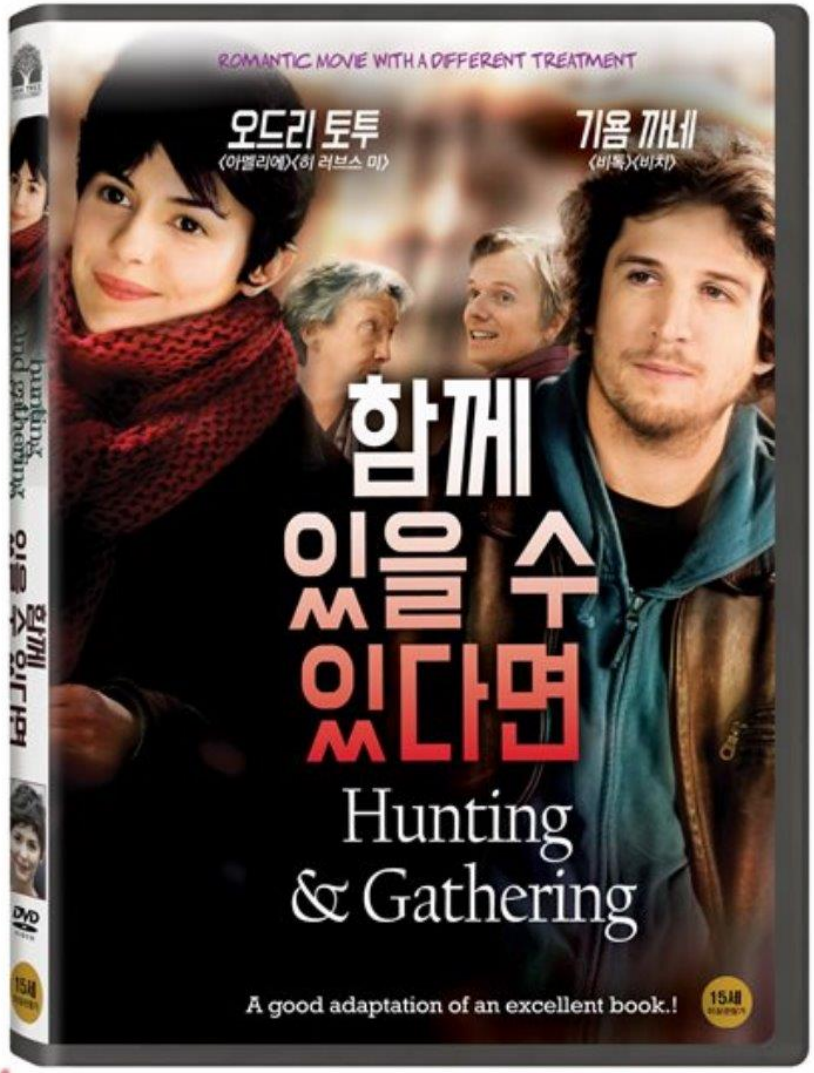
마르셀의 여름(우리 아빠의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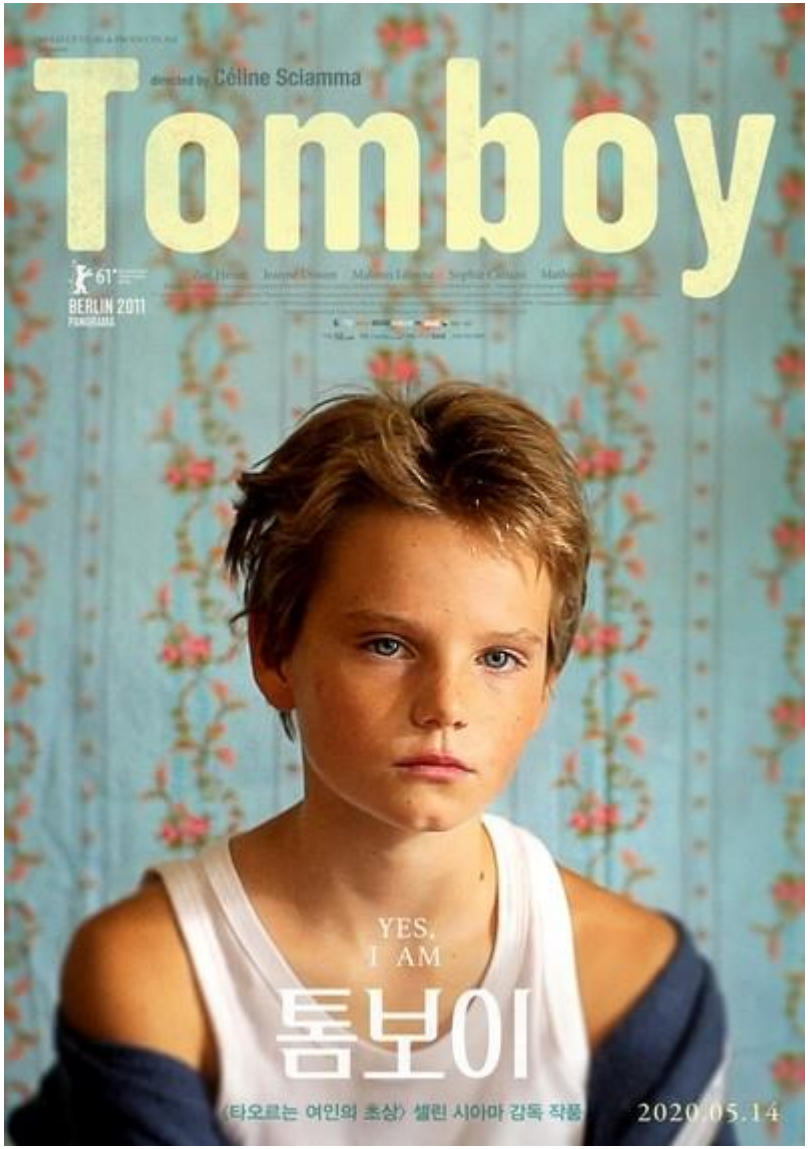
마르셀의 추억(우리 엄마의 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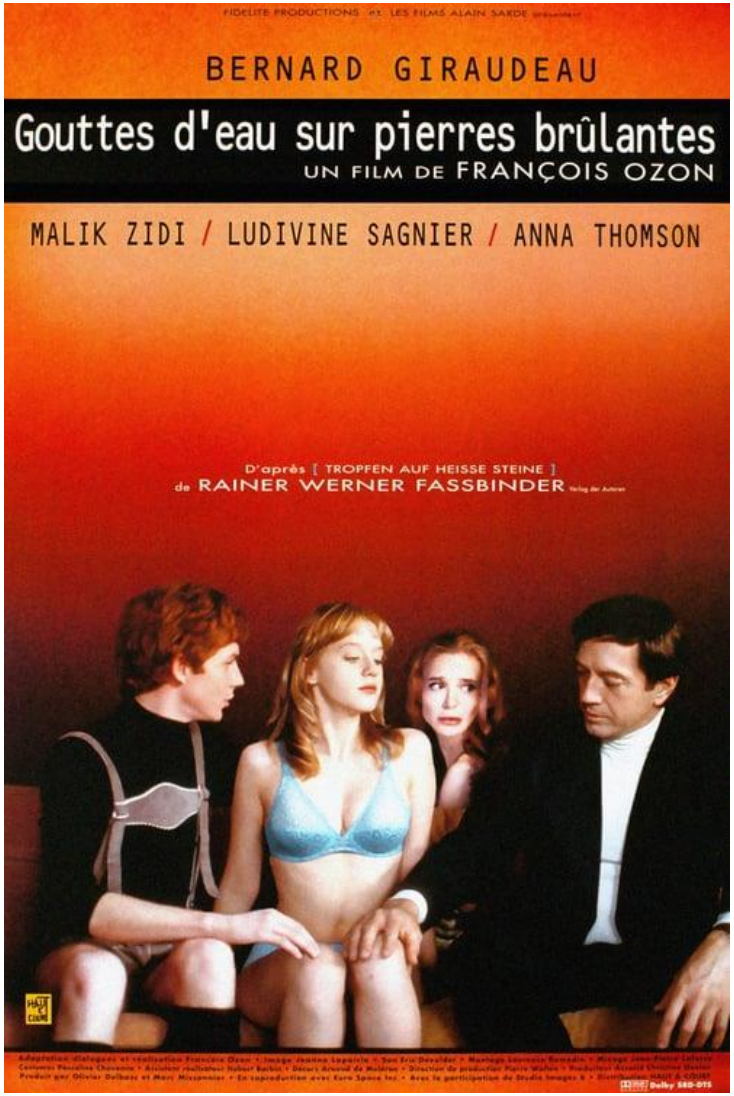
- Directed by Yves Robert
- Produced by Alain Poiré
- Written by Marcel Pagnol (novel) Yves Robert Jérôme Tonnerre
- Starring Philippe Caubère
- Nathalie Roussel
- Thérèse Liotard
- Julien Ciamaca
- Narrated by Jean-Pierre Darras
- Music by Vladimir Cosma
- Cinematography Robert Alazraki
- Edited by Pierre Gillette
- Release date 26 October 1990
- Country France
- Language Fre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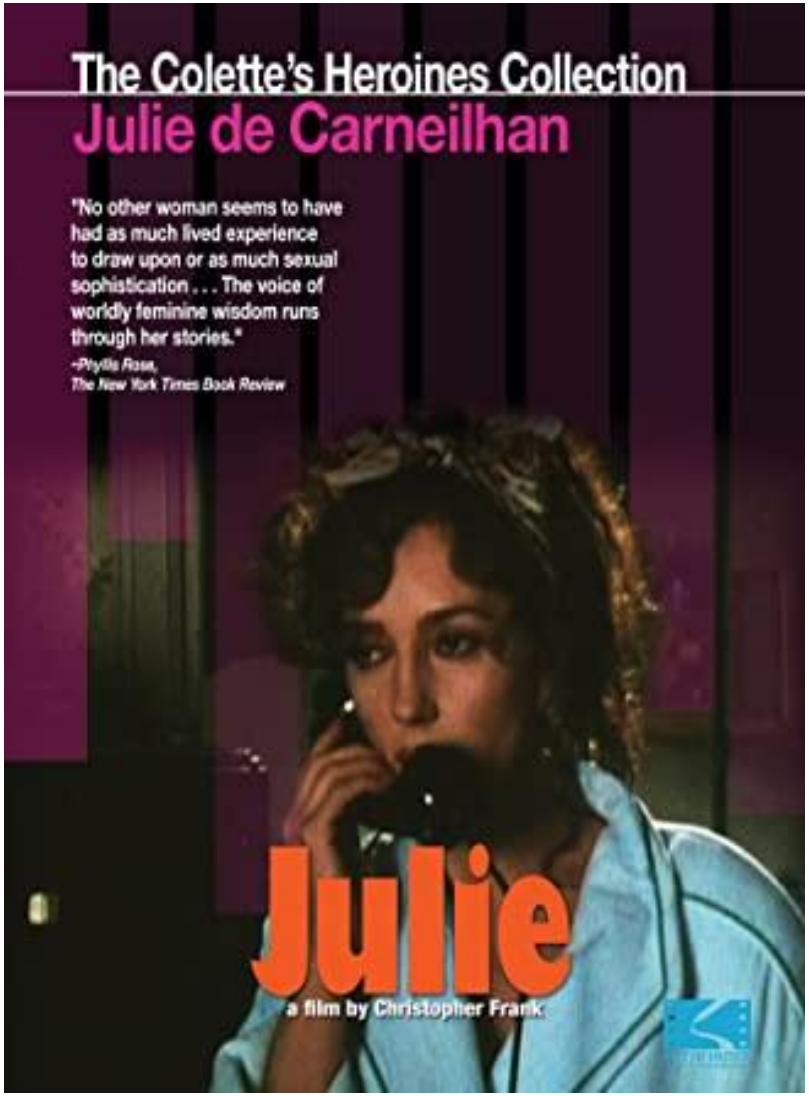
DANY
BOON
CLAUDE BERRI und
JÉRÔME SEYDOUX präsentieren
PROKINO entpi
KAD
MERAD
Über 20 Millionen Franzosen können nicht irren!
Christoph Maria Herbst
spricht SCH'TI
Willkommen bei den
SCH'TIS
EIN FILM VON DANY BOON

"ÉMOUVANT,
ÉPATANT,
EN CHANTANT !"
LE PARISIEN / AUJOURD'HUI EN FRANCE
LA
FAMILLE BÉLIER
ERIC LARTIGAU


ROMANTIC MOVIE WITH A DIFFERENT TREATMENT
오드리 토투
〈아멜리에〉〈히 러브스 미〉
기욤 깨네
〈비톡〉〈비치〉
함께 있을 수 있다면
Hunting & Gathering
A good adaptation of an excellent book.!
15세


Tomboy
directed by Céline Sciamma
61
BERLIN 2011
PANORAMA
YES, I AM
톰보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셀린 시아마 감독 작품
2020.05.14


BERNARD GIRAUDEAU
Gouttes d'eau sur pierres brûlantes
UN FILM DE FRANÇOIS OZON
MALIK ZIDI / LUDIVINE SAGNIER / ANNA THOMSON
D'après [TROPFEN AUF HEISSE STEINE]
de RAINER WERNER FASSBINDER


The Colette's Heroines Collection
Julie de Carneilhan
"No other woman seems to have had as much lived experience to draw upon or as much sexual sophistication . . . The voice of worldly feminine wisdom runs through her stories."
-Phyllis Rose,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Julie
a film by Christopher Frank

GILLES JACOB
Theo Angelopoulos
Olivier Assayas
Bille August
Jane Campion
Chen Kaige
Michael Cimino
David Cronenberg
Jean-Pierre & Luc Dardenne
Manoel De Oliveira
Raymond Depardon
Atom Egoyan
Amos Gitai
Hou Hsiao-Hsien
Alejandro Gonzales Inárritu
Aki Kaurismäki
Abbas Kiarostami
LE FILM ANNIVERSAIRE
OU FESTIVAL DE CANNES
chacun son cinema
Takeshi Kitano

FALL IN LOVE WITH PARIS 18 TIMES.
PARIS, JE T'AIME

60주년 칸느영화제 특별기획
35인의 거장들이 모여
단 한편의 위대한 영화를 만들었다
그들 각자의 영화관
to each his own cinema
5월 대개봉

STARRING:
DIRECTED BY:
나탈리 포트만
엘리야 우드
줄리엣 비노쉬
스티브 부세미
달콤하게, 짜릿하게, 부드럽게
사랑은 어떤 맛?
2월엔 사랑하세요
파리에서는 누구나 사랑에 빠진다
사랑해, 파리
PARIS, JE T'AIME